

# “핸드폰 요금제, 이제 인터넷에서 비교해 보고 고르세요”



Lee  
joon  
hui

“현재 이동통신 3사의 음성요금제는 모두 203종으로, 요금제를 잘못 선택해 손해를 보는 이용자의 손해 액은 연간 2,3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그 가운데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적합한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로 기획된 것입니다.”

취재 김진경기자

정보통신부 정보통신 진흥국 통신이용제도과에서 이동전화 이용제도 업무를 맡고 있는 이준희(42) 주사는 ‘최적요금제 선택정보 제공 시스템’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고 인터넷 서비스를 기획한 핵심인물이다.

정통부 홈페이지(www.-mic.go.kr) 초기화면에서 ‘이동전화 최적요금

제’를 선택해 최적요금제 조회 사이트로 들어가 ‘요금조회’

메뉴를 고른 뒤 해당 사항을 입력·선택하면 가장 값싼 요금제와 요금 수준을 알 수 있다. 먼저 연령대, 성별, 신규·기존가입 여부, 통화시간대, 월간 통화량 등 필수 입력사항을 입력·선택한다. 신규 이용자를 위해 기존 이용자들이 일반적으로 느끼는 통화량 체감정도를 표시해 참고하도록 했다. 예를 들면 ‘아주 적다’는 월 30분 이하, ‘적은 편이다’는 월 30~100분, ‘보통이다’는 월 100~250분, ‘많다’는 250분 이상 등이다.

기존 사용자들은 9월부터 각 통신사업자 홈페이지에서 자신의 정확한 통화량과 시간대별 통화비중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더욱 정밀한 결과를 원할 경우 할인·비할인 시간대별 통화비

중, 망내통화, 약정할인, 커플간·패밀리간·주말·특정지역 통화 등 주요 통화습관을 추가로 입력한다. 이준희 주사는 “9월부터는 이런 개인별 통화습관도 각 통신사업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며 “입력사항에 따라 최적요금제 조회결과가 표시된다”고 말했다. 이 주사는 이용자들이 이동전화요금제를 고르는데 어려움을 겪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이 시스템 구축 아이디어를 냈고, 지난해 10월부터 요금제 분석과 시스템 설계에 착수했다. 이통 3사의 200여 개 요금제를 데이터베이스(DB)로 만들고 특성별로 유형화해 입력 값에 따라 요금을 계산해 내도록 하는 프로그램 제작을 했다.

“착수 5개월 만인 지난 3월에 시스템의 뼈대를 완성하고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 도움을 받아 DB변환과 웹 구축을 마친 뒤 4월부터 각 사업자 검증과 정통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시험 서비스를 거쳤습니다. 개통 초기 접속 폭주에 대비하기 위해 정통부 홈페이지 서버용량을 늘리고 안정화 작업을 끝낸 6월 말부터 정식 서비스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이준희 주사는 “이동전화요금제는 기본료와 통화료로 구성돼 있는데, 요금제가 많으면 오히려 이용자들의 선택에 혼란을 주고 잘못 고른 요금제로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합리적인 요금을 선택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